

불교학 논문 목록집 만든다

최근 인문·사회 계열 연구자들이 불교를 연구 주제로 삼고 있지만, 불교 관련 연구 성과물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이들의 연구 열기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과거 대한불교진흥원 주최로 열린 5천여 건의 불교학 성과물을 색인한 목록집을 발간했지만, 동국대 불교학 자료실에 소장된 4만여 건의 단행본과 논문의 0.1%에 불과할 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1902년부터 2000년까지 불교를 주제로 발표된 단행본과 석·박사 학위 및 연구 논문의 목록이 수집·정리되고 있어 주목된다. 동국대 경주·서울 캠퍼스 도서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철교 부장과 이동규 과장이 지난 20여 년 간 총 7만여 건의 자료를 수집·정리를 마치고, 막바지 교정 작업에 들어갔다.

지난 80년대부터 두 사람이 도서관이나 서점을 일일이 찾아가 수집·색인한 불교 관련 자료는 1902년 구한말 관청인 사찰관리서에서 발간한 <국내사찰현황세칙>부터 올 1월에 발간된 <백련불교논집> 10집과 <정토연구> 3집의 게재 논문까지 총 7만여 건에 이른다. 논문을 비롯해 저서, 전집, 화집, 도록, 연표, 사진, 보고서 등이

1902년~2000년 7만여건 수록

동국대 도서관 이철교·이동규씨 작업
올 상반기 교정완료... CD로도 제작

주류를 이루고 있는 색인 자료는 제목과 편·저자명, 출판사, 연도, 출처 등으로 정리됐다.

이를 다시 대장경과 같은 시리즈, 개론, 교리종관, 유식, 선, 정토 등, 경전, 불교사, 불교종파, 불교예술(법, 불상, 건축 등), 불교음악, 고승 전기, 불교와 과학, 불교와 현대사상 등 80여 가지의 주제로 다시 분류했다. 이외에도 미국, 일본, 중국, 대만 등 해외에서 발간된 한국불교 관련 연구서의 목록도 덧붙였다.

예를 들어 단일 인물 연구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원효(617~686) 스님에 대한 7백여 편의 논문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또한 뉴욕 주립대 박성배 교수의



이철교씨



이동규씨

'원효 사상 연구' (79년·미국), 서울교대 은정희 교수의 '기신론소·별기에 나타난 원효의 일심사상' (82년), 정숙희 씨의 '각(覺)과 선성(善性)에 대한 교육학적 의미: 원효와 무소를 중심으로' (85년), 김준경 씨의 '원효의 교판관 연구' (85년), 충남대 이평대 교수의 '신라 여래상사상 연구' (86년·일본) 등과 같이 발행 일시와 장소, 주제 등으로 원효 스님의 연구 경향 또한 알아낼 수 있다.

이철교 부장은 "한 명의 학자가 모든 연구 성과물에 자유롭게 접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올 하반기에 완성될 목록집은 불교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자료 조사 과정을

단축시키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어떤 주제든지 연구를 시작할 때, 학자들이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것은 대학 및 일반 도서관에서 관련 자료를 찾는 서지학적 접근이다. 따라서 국내 불교학계의 연구 성과나 현황을 꿰뚫지 못한 타 전공 인문학자의 경우, 대부분 본 연구에 앞서 자료 조사에 많은 시간을 쏟아야 한다. 더욱이 불교 관련 학회나 연구소의 논문들은 단행본과 잡지와는 달리 대학과 일반 도서관에 납본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자료 조사 자체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20여 년 간 진행된 이 작업은 한 세기의 불교 관련 연구 자료를 정리했다는 의미 외에도 불교학자의 전유물로 전락하기 쉬운 불교학 연구 성과를 누구나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 해 불교 연구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장은 "천여 쪽의 단행본 3권 분량에 해당하는 7만여 건에 대한 교정 작업은 올해 상반기까지 완료된다"며 "〈불교학 종합 색인〉(가칭)이라는 이름의 CD 타이틀로 우선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종욱 기자

(gobaou@buddhapia.com)



1997년 독일 함부르크 대학에서 유식분야 세계 권위자인 슈미트하우젠 교수와 담소를 나누고 있는 김지건 박사.

해동 화엄 연구 한평생

김지건 박사 타계

1월 23일 오후 3시 일본 도쿄에 있는 상원사주지 오이카와 슈카에에서 '화엄경 약찬계' 독경 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를 전 '허혈성 심질환'으로 향년 70세의 나이로 타계한 한국 불교학계의 거목 장봉(莊峰) 김지건 박사의 장례식이 인도·불교학연구회 소속 한국 유학 스님들의 집전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화엄 연구에 평생을 바친 장봉은 생전에 화엄경 약찬계를 즐겨 읊조렸다는 유가족의 말에 따라, 이 계승으로 장례식의 시작과 끝을 맺은 것이다.

1931년 전라남도 영암군에서 태어난 장봉은 동국대에서 불교학으로 학부와 석사 과정을 마친 후 다시 일본의 고마자와(駒澤)대와 도쿄(東京)대에서 선학과 화엄학을 연구하며 박사 과정을 밟고 1973년 학위논문 '신라화엄사상의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동국대, 강원대,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등에서 후학을 지도했고, 1999년부터 지금까지 일본의 국제일본문화연구센터와 도쿄대에서 '해동화엄 사상사 연구'에 전념했다. 장봉이 이평 평생의 연구 주제로 삼은 것은, 한국 화엄의 독자성을 밝혀내기 위해서였다. 국내·외 후학들이 그를 신라시대 의상 스님에서 고려시대 균여·지눌 스님을 거쳐 조선시대 도봉·유륜 스님과 김시습에 이르는 한국 화엄, 일명 해동 화엄의 선구자로 서슴없이 꼽는 것도 이 같은 연유에서다.

1977년 대한전통불교연구원을 설립한 장봉은 이듬해(78년) '국제불교학대회'를 기점으로 국내 불교학계에 일본이나 대만, 유럽의 불

교학 연구 성과를 적극 수렴하기 시작했다. 1995년까지 12회에 이르는 국제학대회에서는 의상, 원효, 도선, 균여, 청허 스님과 같은 고승과 동아시아, 나당(羅唐) 등의 불교를 주제로 일본, 중국, 대만, 미주, 유럽에서 활동하고 있는 불교학자들이 대거 참가했다.

이에 대해 노조영·양은용(원광대) 교수, 조홍원(한양대) 교수 등의 지인(知人)들은 "유학 이후에도 독일의 집전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화엄 연구에 평생을 바친 장봉은 생전에 화엄경 약찬계를 즐겨 읊조렸다는 유가족의 말에 따라, 이 계승으로 장례식의 시작과 끝을 맺은 것이다."

장봉의 이 같은 저력을 1968년 균여 스님의 저술인 <화엄론철로> 1·2·3권을 교감 역주한 것으로 비롯해 1977년 <균여화엄학전서> 1·2권, 1983년 <화엄일승법계도 주병서 역주>, 1988년 <법계도기총수록>, 1997년 <일승법계도합사일인> 등의 연구서에서도 그대로 나타나, 국내·외 불교학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중 한국 화엄학의 문헌연구에 독보적인 경지를 개척했다는 평가를 받았던 <균여대사회엄학전집> 18권은 지엄·의상·법장 스님 등의 대표적인 화엄 전적에 대한 균여 스님의 주석서를 소개하고, 이들 전적의 인용구의 출처를 일일이 기재하고 있다. 또한 <화엄론철로>의 경우 일본 김택문(金澤文圃)에서 찾아내어 그 손상부분을 보완하여 영인본으로 간행한 것이다.

장봉의 유해는 1월 26일 전라남도 영암군 금정면의 선산에 안장됐다. 그의 위패는 진관사(주지 진관)에 모셔져 있으며, 1월 27일 초재를 시작으로 3월 10일까지 49재를 진행한다. 연락처는 02762-3554.

* 기사 넘쳐 학술기행 '산동반도의 한국불교' 쉽니다.

'고려 고종제서' '수선사형지기' 보존처리

송광사, 10월까지

문화재 보호 우선순위에 밀려 사찰 수장고에 방치되던 보관돼 온 고문헌이 보존 처리되고 있다. 조계종 제20교구본사 송광사는 문화재청과 전남도, 순천시로부터 모두 7천1백여 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지난해 11월부터 국보 제43호 '고려고종제서'와 보물 제572호 '수선사형지기' 등 두 종의 고문헌을 전문기관에 의뢰해 보존처리 중이라고 밝혔다.

두 문헌은 고려시대 불교의 정치적 위상과 경제 규모를 알게 해 주는 중요문서로 평가돼 왔다. 이 중 '고

려고종제서'는 7장의 비단을 이어서 만든 두루마리 대선사의 호를 하사할 것을 제가 한다'는 내용의 목서로 기록돼 있다. '수선사형지기' 역시 비단 두루마리 형태로, 1221년에 제작된 이 문헌에는 수선사의 창건연혁과 가람배치, 사중 스님들의 수와 사찰 운영 규모 등이 자세하게 기록돼 있다.

송광사 성보박물관 학예연구원 한성욱 씨는 "두 고문헌의 보존처리가 오는 10월경까지 마무리 될 예정"이라며 "보존처리작업이 끝나면 대포 복제본을 제작해 박물관에 전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종욱 기자

"소나무-참뿔나무 심자"

익산미륵사지 주변
외국산 나무와 부조화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미륵사지 인근 주민들은 최근 미륵사지를 둘러싸고 있는 미륵산에 포플러와 리기다 소나무, 아카시 등 외국산 나무들이 많아 전통사찰의 풍모와 잘 어울리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미륵산에 자생하고 있는 외국산 나무대신 소나무, 참뿔나무, 홍충나무 등 국내산 나무를 심어 전통 사찰 분위기를 조성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이에 대해 익산시 관계자는 "이곳의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포플러와 리기다 소나무를 심었다"고 설명하고, "우리 나무를 심어달라는 요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오종욱 기자

전북 익산 미륵사지가 전통 사찰임에도 불구하고, 이 일대에 어울리지 않는 외국산 나무들이 많아 나무 종류를

백제역사 민속박물관
3월 착공 2005년 완공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백제역사민속 박물관'이 오는 3월 착공될 예정이다.

충청남도 백제문화관광개발 사업에 따르면 백제역사 재현단지 내 1만3천5백76 평방미터 부지에 들어설 백제역사민속박물관 건립에는 모두 2백76억9천만원을 투입 2005년 완공된다.

지하 1층과 지상 2층의 규모로 건립될 이 박물관에는 3개의 전시실과 보존복원실, 백제관련 자료실과 수장고 등이 갖춰진다.

전라지역 패불 '총정리'

문화재연구원 패불보고서 2집 발간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 조유진은 석가탄신일이나 수목재와 같은 특별한 행사를 위한 의식용 불화로서 당대 최고 수준의 불교회화 작품으로 꼽히는 패불에 대한 조사보고서 제2집을 최근 펴냈다.

이 보고서는 1983년부터 1997년까지 조사한 전남과 전북지역 사찰 소장 패불을 정리했다.

이번 보고서는 화엄사 1653년 작품인 영산회괘불(국보 제301호) 등 20건의 컬러사진으로 담았

고, 각 작품마다 해설과 패불 조성 기록인 화기(畵記)를 수록했다. 또한 남부 지역 패불 현황과 특징을 논한 글도 수록했다.

여기에 담긴 패불은 대부분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후반에 이르는 작품으로, 주제는 석가여래상이 대종을 이룬다. 이 점에서 지역 패불은 17세기에 영산회상도가 주류를 이루다가 18세기에 마륵보살도 등으로 변화해 가는 경향 및 충청지역 패불과 다르다.

EBS불교방송(길을 찾아서) 출연 특혜에 의한 승복의 우수성을 설명

국내 최초 특허청에 의장등록 (제0246178호)
승복·법복·누비·바랑팬메인니

행복을 기원하는 저지 기원성유에서는 "수레바퀴"라는 상표로 승복 및 법복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특허청에 의장 등록 되었습니다.

특징

1.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특허청에 연꽃·용자·만자무늬를 의장등록함.
2. 원단에 무늬가 입체적으로 은은하게 들어 있어 아주 특수함.
3. 누비로 만든 저고리, 바지, 방한복에도 무늬가 들어 있으며, 특수하게 제작하여 소매끝에도 바람이 들지않게 고급스럽게 디자인함.
4. 바랑에도 여러가지 무늬가 있어 아주 세련되고 편리하며 100%방수 처리함.
5. 개량한복처럼 세련되게 디자인 되었으며 원가를 많이 절감함.

스님계 가사 분사 보시하면 10종을 지어 5가지 큰 공덕으로 삼계 팔난을 소멸함.

■ 유사품이나 모방할 경우 법적인 제재를 받음
· 부산, 경남 대리점 (051) 514-8896
· 지역 대리점 모집 중
· 지역 판매점 모집 중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업체 "수레바퀴" 기원 성유

대구시 동구 신천 3동 74-1 (창성빌딩 1층)
상담전화 (053)764-4114/팩스 (053)741-4119
휴대폰 011)9850-4400

행운의 벽조목
(인공이 아닌 천재로 벼락 맞은 대추나무)

옛부터 우리 조상님들께서 벼락맞은 대추나무는 가장 신기한 나무라고 전해내려 오고 있는 진품 벽조목은 세상에서 돌도 없는 천하의 행운을 주는 보물입니다.

사진에 소개된 진품 벽조목은 수백년 묵은 대추나무로 충북 음성군 원남면 상노리 소재 1950년 7월 하순경 벼락 맞은 것을 지금까지 보관하던 귀중한 것입니다.

진품 벽조목은 평생 갖는 목거리, 열쇠고리, 도장, 낙관, 단주, 염주 등을 수제작하여 각종 질병, 사업, 경제난, 임사, 승진, 가정화합, 재력강화, 호신부패물, 부적, 성물, 소원성취를 염원하는 분에게 재앙, 액운, 집귀를 막고 행운을 준다 국어사전, 백과사전에서도 행운의 벽조목이라 합니다.

오직 진품만이 인생을 바꾸는 그 효능을 발휘하는 행운의 벽조목은 항상 생산되는 것이 아니므로 인연 따라 주어집니다. * 구입하신 분은 점안을 원하시면 가능합니다.

홍련임 공덕하 법사
☎ 02)909-1360 · 011-9778-2803

공채 1기
유능한 분을 찾습니다.

1. 모집부문 및 응시자격

모집부문	인원	응시자격
영어·일어 번역팀	- 상근 0명 - 위약 00명	1. 불교/영상 관련서적 번역 경력자 2. 영어 및 일어 전공자 3. 상근 및 위약반의 가능자
편집장	1명	1. 서적 및 사보 발행 경력자 2. 불교/영상 관련서적 편집 경력자 3. 일어번역 가능자 우대
사무장	1명	1. 법인 사무 경험자 2. 영어·일어회화 가능자 3. 경리·회계 업무 및 PC 가능자
간사(여)	1명	1. 홈페이지 관리 가능자 2. 의전 및 스케줄 관리업무 경험자 3. 영어/일어번역 및 회화 가능자 우대

2. 제출서류
① 자필이력서(사진포함) ② 자기소개서(A4용지 3장이상)
③ 주민등록등본 ④ 최종학교 성적 증명서 ⑤ 경력증명서

3. 전형방법
1차 - 서류전형 2차 - 면접 : 1차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지

4. 서류접수기간 : 2001년 2월 17일 도착분까지 유호

5. 서류 접수처 : (제출서류 각 1통씩 하기 주소로 등기 우송 바람)
서울시 종로구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2000호 (주) 각 심원 우편번호 110-619

6. 기타사항
① 이력서 우송상단에 지원분야 및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기재
② 자기소개서 작성시 자세한 경력사항 및 급여수준 명시바람
③ 모집부문 공허 1956년 이후 출생자에 한함
④ 서류는 우편접수에 한함 (전화문의 및 방문접수 일체사절)

주식회사 覺心院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57-18 하남빌딩 503호
Tel : (代) 02-5689-114 Fax : 02-5690-108

밀교강좌 테이프 판매

해정 대정사님이 강의하신 '밀교강좌' 방송분을 TAPE 제작, 판매합니다.

해정 대정사님의 주옥과 같은 법문 80일분량(20개틀이 1SET)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이번 테이프는 밀교의 교리와 수행을 보다 쉽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밀교강좌 TAPE를 구매하시는 분들에게는 '금수지다라니'를 드립니다.

◆ 아래의 계좌로 입금후 전화를 주시면
택으로 우송하여 드리겠습니다.

국민은행 : 065-01-0153-673
주택은행 : 061725-89-144651
예금주 : 최종웅
금액 : 80,000원
문의전화 : (02)913-0133~4